

■ '일심회 실체' 진실 공방 예고

“증거 확보했다” “듣지도 못했다”

공안당국 “장씨의 USB 메모리칩에 담겨” 관련자들 “공작원 접촉 등 수사 조작됐다”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일부 386 운동권의 지하 조직 '일심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설부터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장민호씨를 제외한 4명의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 접촉 및 일심회 가입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서 국정원이 이은 검찰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까지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민호씨만 혐의 '시인' = 우선 공안당국이 장씨에게 포섭했다고 본 4명이 모두 '일심회'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이적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작성한 문건 및 각종 압수물에서 얻은 증거를 토대로 장민호→손정목→이진강·이정훈·최기영으로 이어지는 계보도를 완성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진정한 '일심회' 조직원으로서 활동했는지 뚜렷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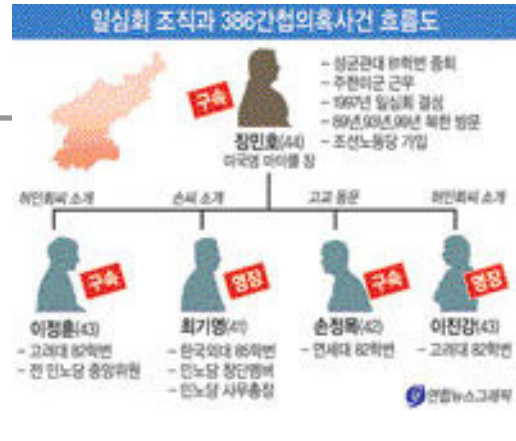
구속된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일심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중국에서 북

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공안당국의 수사 내용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수사가 장씨의 진술 및 장씨와 손씨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장씨 외의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장씨의 보고서가 자신의 입맛대로 쓰여지거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단순한 접촉 사실을 '포섭 활동'으로 과장해 적었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안당국 “증거가 말해준다” = 공안당국 관계자는 “장씨의 USB 메모리칩에 담긴 문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관련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와 일치한다. 장씨 등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공안당국은 장씨에게서 압수한 CD를 암호 해독기로 풀고 있으며 이 CD에서도 장씨가 다른 용의자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작성한 총성결의문과 이진강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새해인사'와 시민단체 포섭 계획 등이 담긴 문건도 용의자들에게는 불리한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년 간 추적된 내사 기록 및 첩보와 증거물들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심회' 사건이 김대중 정부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불거질지 아니면 '거북급 간첩의 386 운동권 포섭 미수 사건'으로 드러날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장과 시각

꽤 막힌 F-1 풀려면



박치경 정치부 차장

서해남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J프로젝트)의 견인차 역할을 할 '2010 F1(포틀러 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준비가 더디다.

전남도는 오는 2010년 J프로젝트 사업지구인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 세워진 전용경기장에서 첫 대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2일 대회 주관기관인 'FOM'과 조인식까지 마쳤지만 후속 절차 시동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F1대회 승리를 갈망하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전남도와 관련 부처, 정치권 사이의 현격한 '사각 차이' 때문이다.

F1대회를 순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정부의 국제대회 승인 ▲경기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하나 녹록지 않다.

우선 특별법 제정 문제. '경차(競車)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전남도와 입법 발의를 준비중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한 달 째 남은 올 정기국회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발의에 나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은 사행성 논란 때문에 경차조항을 꺼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연간 수입이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차의 매력에 간과할 수 없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해남·영암지역 간척지 양도·양수를 놓고 전남도와 농림부는 '동상이음'이다. 전남도는 F1대회 경주장 건설에 필요한 123만평을 비롯, 영암·해남 일대 사업 부지간 간척지를 J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조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유자인 농림부는 개별 사업자가 정해진 후에 '정당한 가격'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9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가격과 양도양수 시기를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정부의 국제대회 승인도 숨어 있는 난관이다. 전남도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 마련에 드는 예산지원에 대해 이달 초 국무조정실에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회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공적 지원이 타당한 지 따져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남도로부터 승인 신청은 받았으나 안전을 해할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30일 간척지 문제 타결을 위해 또 다시 농림부를 방문한다. 전남도는 이번 주부터 F1 특별법 상정과 국제대회 승인을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중앙부처나 국회의 기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명분과 협상 전략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 꽤 막힌 F1대회 준비작업의 탈출구를 열기 위해서는 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할 새로운 카드가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 북핵대책특위 위원들이 29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가 북한의 핵개발에 전동되었다는 의혹을 발표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6억불 북한 軍·黨 유입”

한나라당 의회 특기

한나라당은 29일 지난 1998년 이후 금강산관광 사업 관련대금 6억달러 가량이 북한군과 노동당 등에 유입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재정경제위 소속 최경환, 이혜훈 의원은 이날 연합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학송 의원은 현대아시아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금까지 4억5천만 달러를 마카오의 방코텔타아시아(BTA) 은행 북한

결핵해역 PSI 훈련 한국, 참관단 파견

정부는 30~31일 바레인 앞 걸프 해역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저지 훈련에 외교통상부, 해경 등 관계자 3명을 참관단으로 파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말 미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음식배달자격을 해당하는 5개 방안에 동참키로 했으며 이번 참관단 파견은 5개 방안 중 하나인 '역의 차단훈련 참관'의 일환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PSI 음식배달 참여 결정 이후인 올해 4~5월 호주, 터키 등지에서 진행된 PSI 훈련에 3차례 참관단을 파견했다. 10월9일 북한 핵실험 이후 PSI훈련을 참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PSI 훈련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미국이 주관하는 이 훈련에는 미국, 호주, 바레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6개국 포함, 항공기, 특수팀 등 작전 부대(operational assets)를 파견하며 한국과 일본 등 참관국을 포함 총 25개국에 참여한다

北 겨냥 '핵 테러방지구상' 출범

미·러 등 12개국 참여
오늘 모로코서 첫 회의

미국과 러시아 등 12개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겨냥, 핵물질이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막기 위한 이른바 '핵 테러방지구상'을 곧 출범한다.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과 세르게이 키슬야크 러시아 외무차관을 이틀 30.31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다른 10개국 대표들과 회동, 핵테러리즘을 격퇴하기 위한 글로벌 구상에 관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구상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후 같은달

패트리엇3 미사일 日 수도권 배치 검토

주일 미군이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의 핵심인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3 미사일(PAC3)을 일본 수도권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

공무원 아간반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개강 11월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아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면접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11월1일 ☎ 227-8088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23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풀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재관(회원제)
 - 정독서신, 고시원 합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매월 실전문고사 실시(OMR카드 생략)라 카운터생체로 제공
 - 전용자습실 사용 가능
 - 시험할 무료사용 가능
 - 심화반 선택 및합 수강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영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국내결혼, 국제결혼 전문업체

결혼정보 모모

결혼정보모모는 국내, 국제결혼(베트남, 몽골, 일본)전문업체로서 풍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반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가장 잘 맞는 키를 찾아 주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중매와 성숙위주의 중매로 고객 여러분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성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례임으로 준비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배우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세요!!

결혼(초혼, 재혼, 민혼, 국제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결혼정보모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출발, 결혼정보모모에서 아름다운 반대를 만나 행복한 결실을 맺으십시오!!

- 국내 초혼, 재혼: 한번 회원이 되시면 성사까지 지속적인 찾기를 지원합니다.
- 국제 결혼: 당사에서 하는 일은 당신의 삶을 좌우하므로 친절, 정직, 성실로 이룬다고 순박한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외국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딩케를 매니저 모 집

결혼정보 모모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 1-1번지 광주빌딩 601호 문의 (062)223-5949 H.P 010-9944-0682